다산포럼

조상호

상상의 생태계를 위하여

신록의 푸르름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가을 단풍의 장엄한 합창은 이미 봄부터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햇빛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도 다른 생명들을 위한 배려가 숲을 이룬다. 큰 나무만이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다.

질긴 생명력의 야생화는 현란한 색상과 짙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불러 종족을 유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번창하여 숲마을의 기초를 이룬다. 들판의 꽃은 숲으로 들지 않고 숲속의 야생화는 들판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숲의 생태계는 우리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 생태계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영화학의 창립자 관정(冠廷) 이종환 회장이 개인 재산 8000억 원을 출연한 교육재단이 매년 150억 원의 장학사업을 지원한다는 뉴스는 신선한 충격이다. 속세에서 인기있는 실용학문인 법대나 의대보다는 자연계 이공계의 기초과학을 집중 지원하여 그 분야의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혜안도 높아보인다.

2000년 6000억 원으로 시작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은 지금도 국내 최대이지만 한두 해 안에 1조 원의 재단으로 확충하여 장학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재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서울대 도서관 신축에 600억 원을 쾌척했다.

세계 무역대국 10위 안에 우뚝 선 이 나라 정부 관리나 이제는 낡아빠진 대권을 쥐겠다고 부나방처럼 나서는 권력중독자들이 많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시민이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창의문(倡義文)을 들고 나선 의병(義兵)정신이 이러한가 싶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의 결정체로 면면히 이어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패한 관군(官軍)의 한심한 작태는 지금도 여전하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선량한 관리자의 본분이 곧 권력을 위임한 시민의 뜻임을 재삼 확인할 때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회계 부정이나 기업의 부정부패로 검찰의 문 앞에 선 재벌그룹 총수들을 자주 본다. 구속을 면하려는 대(對)국민사과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재산의 사회환원을 내세워 3000억, 5000억 원의 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약속한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 재단조차도 이 사회의 낮은 곳에 충실히 임하는지 모르겠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며 세계적 기업을 꿈꾸는 그이들도 국민의 인내를 담보로 한 수출지원 금융만이 아니라 값싼 산업용 전기와 수천억 원의 R&D 지원 자금이라는 우리 생태계의 뒷받침을 모른 척해서는 어릿광대짓에 불과할 것이다. 더욱 겸손하고, 선대 창업자의 근면검소한 기풍을 다시 구현할 일이다.

"천사처럼 벌지는 못했지만 천사처럼 쓰겠다"는 이종환 회장은 체면치레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쓰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집으로 오늘날의 교육재단을 만들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구두쇠로 보일 수 있다. 구순을 앞둔 이 회장이 숱한 해외여행에서 아직도 이코노미 좌석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를 배출한 실리콘 밸리의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버닝맨(burning man)이라는 행사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버닝맨이 열리는 블랙락 사막에서는 1주일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빌딩과 회의실이 설치된다. 이런 작업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사 직후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예술가들과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 정열적인 음악가와 엔지니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창의성과 머릿속에 들어 있던 야망을 불태우는 것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히피문화가 기성체제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다면, 버닝맨의 문화는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개방과 창조성, 자기조직, 공유, 그리고 혁신이라는 실리콘 밸리의 가장 중요한 문화와 그 맥이 닿아 있으며, 서로에게 셀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커졌다. 실리콘 밸리의 오픈소스 운동의 아이디어는 바로 버닝맨의 개방형 협업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산업생태계에만 국한시킬 일은 아니고 바로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가치가 주류로 형성되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싶다. 이종환 회장의 선행이 너무 값져 보이는 늦은 봄날, 쏟아지는 빗속에서 건강한 숲의 생태계를 넘어서는 상생하는 상상의 생태계를 그려본다.

〈㈜나남출판 대표이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가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냥 동물로 살기도 힘에 부칠 마당에 사회적으로도 '정상'인 동물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의 오염과 개인의 생활 습관이 변화되면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증가 속도를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YMCA가 발달장애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청소년지원센터 '트라이앵글'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센터 내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직접 밖으로 체험활동을 나간다.

여러 사람의 따가운 시선, 혹은 동정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제까지 비장애인들 또한 겪어왔던 사회적 훈련의 과정을 장애청소년들에게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당연한 듯 익혀온 것이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훈련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는 것,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소한 과정 속에도 우리가 지켜야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발달장애청소년을 '치료'하려는 기관들은 시설 안에서의 활동이 많았다. 대부분은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보다 치료하고 도와야할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광주YMCA 발달장애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토요체능교실. 방학프로그램(겨울학교, 여름학교), 문화체험 오감만족, 그리고 트라이앵글교실이다.

특히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코하마YMCA의 트라이앵글과 교류캠프는 양국의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며, 오히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지도자들보다 훨씬 값진 경험을 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배우기 시작한 난타는 시작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2011년에는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펼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대견스러운 한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아이들의 가능성을 가둬버릴 수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다.

오는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또다시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우리가 세워놓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광주YMCA 'Dream 청소년오케스트라'와 발달장애청소년지원센터 '트라이앵글'이 만나 이루어지는 경쾌한 하모니가 푸른 5월의 하늘을 더욱 밝게 물들일 것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비장애인의 방식을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은 그들의 표현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발달장애청소년들도 성장이 조금 더디고, 배우는 방법이 다르고, 표현방법이 비장애인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틀린' 사람이 아닌 성향이 다른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며, 장애인에게도 경험의 기회가 많은 사회를 기원한다.

〈광주YMCA 발달장애청소년지원센터 담당〉

기 고

혁신도시 명품화의 조건

오병기

지난 5월 8일 전력거래소가 착공함으로써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 15개 중 12개 기관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전대상 기관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혁신도시의 택지분양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료되었다.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이 애초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지고 있지만 타지역의 혁신도시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은 어찌 되었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역에서의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이전대상 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역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상생할 때, 50년 후 100년 후에도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지역에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전남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의 진척, 이로 인한 경제성장 동인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2000개 기업 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러한 유치대상 기업에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이들을 자칫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전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렛대 삼아 추가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및 에너지 관련 1차 유관기관과 협력업체는 228개, 임직원의 수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기업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전대상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정주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의 교육·의료·쇼핑·문화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역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 이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인력 배치 효율화,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교나 고등교육기관의 인력을 이전기관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내 고급인력 양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연구소·유관기관·중소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동반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합심한다면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아열대 기후 급속화…작물 개발 더 빨라져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자꾸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농사를 짓는 당사자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열대 기후 특성에 맞는 재배 작물의 개발과 재배법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 연구결과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는 0.74℃의 기온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100년간은 무려 4℃나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니 10~20년 걸리는 품종 육종기간을 단축하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다.

기온이 2℃ 상승할 경우 감귤 재배 가능 지역은 36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즉 현재 육지에는 감귤 재배 적지가 없지만 현재 같은 추세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앞으로 30년 후인 2040년에는 전남 목포와 경북 포항, 경주, 경남 남해 같은 남쪽 해안지방에서는 충분히 감귤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겨울철도 마찬가지다. 노지 상태에서 구아바나 아보카도, 아떼모야, 그리고 망고까지 재배할 수 있는 면적도 기온 상승에 맞춰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기온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작물의 개발도 더 빨라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전남북 농촌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기후변화의 추세에 맞춰 새로운 농촌 작물 재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업 특성상 육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작물의 개발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전남북 지역 기후특성에 맞는 재배품종을 적응시켜 새로운 농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강 시장도 '人災' 인정한 수돗물 오염사고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약품 과다 투입으로 80여만 명의 수용가에 기준 초과 수돗물이 공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시간만에 정상화됐지만 비상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다 사후 대처마저 부실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용연정수장 약품탱크 누출액 방지설치공사를 하던 중 작업자들이 비상약품 공급밸브를 잘못 조작해 부유물질 응집제가 과다 투입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수소이온농도가 6.5~6.6pH를 크게 밑도는 5.5pH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된 것이다.

문제는 오염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상황실에 비상벨을 울린 것은 지난 12일 낮 12시34분께이나 수돗물 이상 신고가 접수된 오후 3시44분까지 광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비상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오후 7시 30분께야 음용 자제를 알리는 고지를 방송국에 요청했다. 무려 7시간이나 오염된 물이 공급됐고, 시민들은 밤 늦게 생수 구입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상수도본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광주천 일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이나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오염된 수돗물 수만t을 버리면서 발생한 수억 원의 혈세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강운태 시장은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강 시장 취임 후 공무원 비리와 기강해이로 벌써 몇 번째 '사과'인가. 그 스스로 예방조치나 사후대처가 안 된 인재라고 강조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관계자들의 잘못을 철저히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한다.

정부, 최저가 낙찰제 도입 신중 기해야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적격심사 낙찰제 개정안 설명회'를 보이콧 했다. 적격심사 개정이 지난해 국회에서 2년간 유예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전북도회와 공동으로 광주 KT정보통신센터에서 '적격심사 낙찰제 개정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직원 300여 명이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설명회장을 봉쇄하고 강사들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이 건설업체간 변별력이 약하고, 운찰제(運札制·입찰운에 의해 낙찰받는 것) 성격이어서 적격심사 낙찰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실적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이 낙찰제도 개선을 빌미로 공사비를 최저가로 끌어내리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건설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대로 낙찰제가 개정되면 덤핑입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저가 방식 자체가 중소업계보다는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 중견·중소업체의 대기업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보다 중소건설업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최저가 문제를 비롯 대형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는 9월 입찰제도를 원안대로 개정할 경우 중소건설업의 도산과 지역경제 추락 등 그 후폭풍을 유념하란 얘기다.

無等鼓

계율

최근 장성에서 벌어진 조계종 승려들의 거액 포커 도박을 놓고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승려들이 술과 담배를 즐기며 도박판을 벌였다는 사건의 여파로 조계종의 핵심 간부들이 사퇴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총무원장은 국민에게 "참회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검찰도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내막을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여론은 수행자들이 계율(戒律)을 크게 어겼다는 비난에 모아졌다.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엄격한 계(戒)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10가지를 금하고 있다.

살생과 강탈, 간음, 거짓말, 술 또는 마약에 취하거나 정오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세속적인 오락을 해서는 안되며, 장식물로 몸을 치장하고 향수를 뿌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치스럽고 높은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금은을 취하는 것도 10계에 들어간다. 집에서 불교를 신봉하는 신도들도 10가지 중 앞의 5가지 계율(五戒)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수행자로서 계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즉, 10가지 계율 가운데 '술에 취하지 말라'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세속적인 오락'(도박)에 빠져든 것도 큰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나 수행자를 우러러보는 것은 일반인이 지키기 어려운 계율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계율은 인간의 쾌락이나 본능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계율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잣대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일반인과 별반 다를게 없게 된다.

부처님오신날(28일)을 앞두고 터진 승려도박 사건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굳이 절집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